

세계 첫 5G 상용화 자축... '3社3色' 5G 초실감 공연

SKT 超5G+ 문화... 한류 콘텐츠 비전 제시
 KT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 홀로그램 재현
 LGU+ 스마트 드론·AR 접목 5G 공연 선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기념한 '코리아 5G 테크-콘서트'에서 5G 시대에 다가올 실감형 콘텐츠와 공연을 선보였다. 서울-부산-광주에서 원격 협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홀로그램으로 역사 강연을 진행하는 등 5G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은 8일 서울 K 아트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SK텔레콤의 '초(超)5G'를 문화와 융합 시킨 신개념 공연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정부와 통신3사, 제조사, 중소·업체 등 5G 상용화를 일궈낸 각 분야의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SK텔레콤의 시연은 서울·부산·광주 등 3곳에서 서로의 공연을 초고화질(4K UHD)로 실시간 시청하며 함께 연주하는 '3원 원격 협연'이었다.

공연은 부산 벡스코에서 양악기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국악기인 장구와 대금, 광주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양악기인 비올라, 바이올린, 국악기인 해금, 좌고, 아쟁, 피리가 동시에 '아리랑 변주곡'을 연주했다. 서울의 행사장에서 이들의 반주에 맞춰 현대 힙합댄스 콜라보 무대를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의 초5G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2.7기가비트(Gbps)로 높여주는 '5GX 터보 모드'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KT 또한 이날 행사에서 드론 프리스타일과 5G 기반 홀로그램 공연을 선보였다. KT 소속 김민찬(15) 선수는 드론의 토네이도(회오리를 만들며 좁은 반경을 회전하는 비행), 서클(넓게 서클을 만드는 비행), 고속(이리저리 빠르게 왔다



U+5G드림콘서트에서 청하가 U+AR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KT 5G폰으로 연결된 올림픽공원 5G 테크 콘서트 무대의 실민석과 광화문 KT스퀘어의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SK텔레콤이 5G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협연을 펼치는 '초실감 인터랙티브 공연'을 열고 있다.

/SK텔레콤

갔다하는 비행) 기술을 선보였다.

이어 5G 기반의 홀로그램으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을 무대에 재현했다. 이상룡 선생은 독립운동가의 산실, 신흥무관학교에 설립에 기여했으며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등을 지낸 애국지사다. 한국사 전문가인 실민석이 올림픽공원 무대에 등장해 이상룡 선생을 광화문 KT스퀘어의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에 5G가 상용화됐

다는 것에 착안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이상룡 선생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자율주행·스마트 드론·가상 현실(AR)을 접목한 5G 공연 'U+5G 드림콘서트'를 선보였다.

특히 드론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현장을 날아다니는 U+스마트드론이 화면을 넘나들며 일상 속 다양한 장소를 조망했다. 가상현실을 통해 전통시장에 나타난 가수 흥진영, 학교

운동장으로 찾아온 아이돌 가수 아이콘, 루프탑에 온 아이돌 가수 위너 등이 눈길을 끌었다. 5G AR을 공연에서는 인기 키즈 유튜버 '어썸하은(나하은, 11세)'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어썸하은은 톨모델인 아이돌 스타 '청하'를 AR로 만나 호흡을 맞추며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U+5G의 콘텐츠들을 접목해 스마트드론이 날고,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는 이색적인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차 'i30 N TCR'

세계 최정상 '투어링카대회' 개막전 우승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경주차 'i30 N TCR'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대회인 '2019 월드 투어링 카 컵(WTCR)' 개막전에서 우승했다고 8일 밝혔다.

i30 N TCR 경주차는 지난 5~7일 모로코의 '마라케시 스트리트 서킷'에서 열린 WTCR 대회 개막전에 참가해 두 번째 결승에서 우승을 기록했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이 공인한 대회인 '2019 WTCR'은 모로코 개막전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중동 등 모두 10개국에서 열리며, 대회마다 3차례의

결승이 진행된다.

i30 N TCR은 이번 대회에서 아우디 RS3 LMS와 폭스바겐 골프 GTi, 혼다 시빅 타입R 등 C세그먼트 고성능 경주차 26대와 경합을 벌였다.

WTCR 대회는 제조사의 직접 출전은 금지하며,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고객인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 부문에 해당한다.

'i30 N TCR' 경주차는 이번 대회에 고객 레이싱팀 2팀에서 2대씩 모두 4대가 출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 5~7일(현지시간) 진행된 '2019 월드 투어링 카 컵(WTCR)' 개막전 경기에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경주차인 'i30 N TCR'가 주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금호석화, 문동준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02년부터 금호미쓰이화학서 임원
 부사장엔 김선규 전 포스코대우 부사장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은 8일 금호석유화학 신임 대표이사에 문동준(사진) 전 금호피앤비화학대표이사, 관리본부장(부사장)에 김선규 전 포스코대우 부사장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휘문고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회장 부속실과 기획·해외영업 부서 등을 거쳤으며, 2002년 금호미쓰이화학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

김 부사장은 대전고와 서강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주)대우에 입사해 원유·석유·화학제품 부문 등을 담당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포스코대우 물자화학본부장을 맡았다.

김 부사장은 금호피앤비화학 신우성 대표이사에 이어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두 번째 외부 인사 영입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LG전자,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 국내 출시

초음파 진동으로 각질층 흔들어 세안

LG프라엘 초음파 클렌저가 8일 국내에 출시됐다.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는 LG프라엘의 5번째 제품이다. '더마 LED 마스크'(LED 마스크), '토탈 리프트 업 케어'(탄력 관리), '갈바니 이온 부스터'(화장품 흡수 촉진), '듀얼 모션 클렌저'(클렌징)를 이었다.

초음파 클렌저는 초음파 진동으로 피

부 각질층을 부드럽게 흔들어 균열을 내고 세안 용액에 기포를 만드는 원리다. 초당 37만회의 초음파 진동과 분당 4200회의 브러시 미세진동을 해준다.

피부 깊은 곳에 있는 미세먼지와 노폐물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취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라엘 라인업을 확대 중이다. 신제품은 실리온 진동 타입을 선호하는 고객에 적합하게 제작했다.



LG전자는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를 출시했다.

/LG전자